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젊은과학자상'

# 평균 수상나이 37.6세 '과학기술계 신인상', "사기진작에 가장 큰 도움"



1997년 제정된 과학기술계 신인상 '젊은과학자상(대통령상)'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젊은과학자상은 만 40세 미만의 잠재력 있는 과학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상엽 KAIST 교수, 조민행 IBS 연구단장, 현택환 IBS 연구단장, 김대식 서울대 교수,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김범식 고등과학원 교수 등 역대 젊은과학자상 수상자들은 뛰어난 연구성과로 한국 과학기술계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받으며 관련 연구 분야를 이끄는 리더들로 활약 중이다. 젊은과학자상과 관련된 수상자 현황과 성과, 향후 정책수요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본다.



## 【 누가 수상했을까? 】

### ★ 최연소 수상자는 누구?

2016년 자연과학(수학) 분야 수상자인 오성진 고등과학원 연구교수는, 만 27년 8개월로 종전 29년 11개월의 기록을 크게 단축하며 최연소 수상 기록을 세웠다.



### ★ 3명 밖에 없는 여성수상자

안타깝게도 여성수상자의 비율은 3.8%. 김빛내리 IBS 연구단장(2006), 백성희 서울대 교수(2008), 박문정 POSTECH 교수(2016) 밖에 없다. 올해부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약진이 기대된다.

대 교수(2008), 박문정 POSTECH 교수(2016) 밖에 없다. 올해부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약진이 기대된다.

### ★ 출연연·기업연 소속은 누구?

젊은과학자상은 수상당시 기준으로 5명만이 대학 외에 기관에서 배출됐다. 그러나 현재는 그 분들 모두 대학에서 연구 중이다. 유일한 기업연구소 소속이었던 삼성중합기술원 이태우 박사(2007)는 현재 POSTECH 교수이며, KIST 조윤제 박사(1998)는 POSTECH에서, 표준과학연구원 강성준 박사(2008)는 경희대에서, 지질자원연구원 조경남 박사(2014)는 강원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또 한 명의 KIST 출신 최경수 박사(2012)는 미국 워털루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 ★ 수상자 최다배출기관 Top 5 (수상당시 기준)

